

사회적기업의 고용효과 및 결정요인*

윤 윤 규**

I. 머리말

사회적기업은 생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직접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한다. 사회적기업의 고용효과를 논의함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따라 고용성과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고용효과를 비교분석할 때는 이러한 목적상의 차별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하나의 성과지표(예로, 고용증가율)에 따라 상이한 목적유형의 성과를 평가할 경우 사회적기업의 취지나 목적을 무시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고용성과를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유사한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기업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경쟁력 유지 또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된다.

셋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이와 관련된 고용이 창출될 것이지만, 유사한 민간부문의 기업들과 비교할 때, 과연 고용성과가 우월한가의 문제이다. 적절한 과정을 통해 잘 구성된 비교집단이 존재한다면,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하면서 비교집단을 사회적기업과 비교하여 순고용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글은 이상에서 논의된 문제 인식하에서 지난 3년(2007~09년) 동안의 『사회적기업 사업보고』 자료로부터 구성된 기업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보여주는

* 이 글은 장흥근 외(2011), 『사회적기업과 인적자원 전략』, 「제6장 사회적기업의 고용효과」를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yy27@kli.re.kr).

기초통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사회적기업의 고용성과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 비교집단과 비교할 때 과연 사회적기업의 고용성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그러나 분석 자료의 시계열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종료된 이후 시점까지를 포함하지 않아서 정부 예산지원 종료 후에 사회적기업의 고용성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분석 자료의 시계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출되는 분석결과는 그 해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보다 긴 시계열을 가지는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II. 사회적기업의 주요 특성

1. 분석 자료의 구성

이 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주요 특성 및 일자리창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7~09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직형태, 지역, 목적 유형, 사업분야, 총수입, 영업활동 규모, 민간시장 규모, 교육훈련비, 인증연도 등의 기업 특성 변수들, 그리고 이 글의 주된 관심변수인 근로자 수 정보를 제공한다.

이 글에서 사용된 자료는 지난 3년간(2007~09년) 인증된 사회적기업 288개소(2007년 52개소, 2008년 166개소, 2009년 7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이다. 한편 사회적기업과 비슷한 속성의 비교집단에 비해 일자리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지(또는 낮은지)를 보기 위해 한국기업DB로부터 지역과 사업분야(업종), 사업체규모(300인 미만)를 고려하여 비교대상 기업의 표본을 추출한 다음, 이를 사회적기업 표본과 결합하여 최종 분석데이터를 구성하였다.

2. 사회적기업의 주요 특성

<표 1>은 인증 사회적기업의 근로자 수, 주요 근로자특성별 비율, 임금, 근로시간, 총수입 등 주요 변수별 기초통계(평균값)를 제시한다. 먼저 인증연도와 관계없이 전체 사회적기업을 보면, 근로자 수(고용규모) 변수의 평균값은 2007년에 57.4명이었으나 2008, 2009년에는 39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회적기업의 고용규모가 줄었다기보다는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 고용규모 분포에서 차이가 발

〈표 1〉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주요 변수들의 추이 : 평균값

| | 전 체 | | | 2007 인증 | | | 2008 인증 | | 2009 인증 |
|------------|-------|-------|-------|---------|-------|-------|---------|-------|---------|
| | 2007 | 2008 | 2009 | 2007 | 2008 | 2009 | 2008 | 2009 | 2009 |
| 근로자 수(명) | 57.4 | 39.3 | 39.2 | 57.4 | 67.2 | 66.6 | 30.4 | 36.0 | 27.3 |
| 임금-정규(천 원) | 1,161 | 853 | 1,297 | 1,161 | 1,040 | 1,285 | 795 | 1,294 | 1,314 |
| 취약계층 비율 | 0.57 | 0.57 | 0.60 | 0.57 | 0.57 | 0.53 | 0.57 | 0.58 | 0.70 |
| 여성 비율 | 0.66 | 0.66 | 0.65 | 0.66 | 0.64 | 0.63 | 0.67 | 0.66 | 0.66 |
| 30~55세 비율 | 0.64 | 0.65 | 0.64 | 0.64 | 0.65 | 0.64 | 0.65 | 0.64 | 0.65 |
| 1년 미만 비율 | 0.47 | 0.31 | 0.55 | 0.47 | 0.35 | 0.42 | 0.30 | 0.54 | 0.67 |
| 주40시간 비율 | 0.93 | 0.88 | 0.88 | 0.93 | 0.88 | 0.89 | 0.88 | 0.89 | 0.83 |
| 총수입(백만 원) | 1,040 | 915 | 1,140 | 1,040 | 1,890 | 2,340 | 612 | 1,050 | 509 |
| 영업활동 비율 | 0.58 | 0.61 | 0.63 | 0.58 | 0.58 | 0.59 | 0.62 | 0.58 | 0.77 |
| 교육훈련비 비율 | 0.03 | 0.005 | 0.01 | 0.03 | 0.004 | 0.003 | 0.005 | 0.01 | 0.01 |
| 관측치 | 52 | 218 | 288 | 52 | | | 166 | | 70 |

생했음을 반영한다.

2007년 인증 사회적기업만을 보면, 2007년 평균 고용규모는 57.4명이었으나 2008년 10명 정도 증가하였고 2009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2008년 인증 사회적기업은 비교적 고용규모가 작은 기업들로 고용규모가 2007년 인증기업에 비해 절반 정도이지만 증가 추세를 보인다. 요컨대, 인증 초기인 2007년에는 비교적 고용규모가 큰 기업들이 인증된 반면, 2008년부터는 2007년에 비해 고용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었던 사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임금수준을 보면, 2007년 인증기업의 경우 2007년 임금은 1,161천 원이었으나 2008년 10여만 원 감소하였다가 2009년에는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08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2008년 임금은 795천 원이었으나 2009년 1,294천 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평균 임금수준은 1,314천 원으로 2007, 2008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2009년도 임금수준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근로자 인적특성별 구성을 보면, 취약계층 비율은 2009년 인증기업의 경우 70%로 높으나, 2007년과 2008년 인증기업의 경우 대체로 55% 내외의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여성 비율과 30~55세 근로자 비율은 인증연도에 관계없이 대체로 65%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40시간 근로자 비율을 보면, 인증연도에 관계없이 대체로 90% 내외의 수준으로 대부분이 주40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년 미만 근속자의 비율을 보면, 2007년 인증기업의 경우 2007년에 비해 2008년 1년 미만 근속자의 비율이 감소하다가 2009년 다시 늘어나는 반면, 2008년 인증기업의 경우는 1년 미만 근속자의 비율이 2009년으로 가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측면에서 열악하여 근로자의 이직이 빈번함을 보여주는 간접적 증거로 볼 수 있다.

총수입의 경우, 고용규모 차이로 인해 인증연도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비교적 총수입 규모가 크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2007년 1,040백만 원이었던 총수입 규모가 2008, 2009년에 각각 1,890백만 원, 2,340백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도 2007년 인증기업에 비해 총수입 규모는 절반수준에 불과하나, 2008년 612백만 원이었던 수입 규모가 2009년에는 1,050백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9년도 인증기업의 총수입 규모는 2008년 인증기업 보다 낮은 수준(509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총수입 대비 교육훈련비의 비중을 보면, 인증연도에 관계없이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교육훈련비 투자의 저조는 사회적기업들이 구조적으로 보다 양질의 인적자원을 축적·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쉽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끝으로 총수입 가운데 영업활동의 비율을 보면, 2009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77%로 매우 높으나 2007년과 2008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60%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을 목적유형별로 나누어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자(표 2). 먼저 정규직 임금의 경우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일자리 제공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이어서 근로자인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일정한 전문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는 반면, 일자리 제공형의 경우 주된 목적이 숙련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기업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취약계층 비율을 보더라도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경우에는 매우 낮은 반면, 일자리 제공형에서는 그 비율이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목적유형별 사회적기업의 주요 변수들의 추이 : 평균값

| | 일자리 제공형 |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 | 혼합형 | | | 기타형 | | |
|------------|---------|------|-------|-----------|-------|-------|------|------|-------|-------|-------|-------|
| | 2007 | 2008 | 2009 | 2007 | 2008 | 2009 | 2007 | 2008 | 2009 | 2007 | 2008 | 2009 |
| 근로자 수(명) | 40.9 | 37.1 | 36.5 | 54.6 | 30.1 | 42.8 | 75.4 | 46.1 | 41.6 | 53.1 | 37.0 | 41.2 |
| 임금-정규(천 원) | 1,157 | 793 | 1,168 | 1,479 | 1,043 | 1,563 | 959 | 711 | 1,310 | 1,277 | 1,185 | 1,434 |
| 취약계층 비율 | 0.70 | 0.74 | 0.72 | 0.37 | 0.29 | 0.35 | 0.59 | 0.56 | 0.56 | 0.48 | 0.33 | 0.43 |
| 여성 비율 | 0.53 | 0.55 | 0.56 | 0.86 | 0.80 | 0.79 | 0.78 | 0.80 | 0.77 | 0.58 | 0.57 | 0.57 |
| 30~55세 비율 | 0.58 | 0.59 | 0.61 | 0.70 | 0.72 | 0.68 | 0.63 | 0.68 | 0.66 | 0.69 | 0.73 | 0.67 |
| 1년 미만 비율 | 0.27 | 0.32 | 0.57 | 0.46 | 0.34 | 0.48 | 0.62 | 0.33 | 0.58 | 0.49 | 0.23 | 0.49 |
| 주40시간 비율 | 0.86 | 0.85 | 0.86 | 0.99 | 0.93 | 0.85 | 0.92 | 0.86 | 0.88 | 0.98 | 0.95 | 0.96 |
| 총수입(백만 원) | 904 | 910 | 1,090 | 723 | 698 | 1,130 | 771 | 786 | 928 | 1,590 | 1,410 | 1,900 |
| 영업활동 비율 | 0.69 | 0.61 | 0.64 | 0.59 | 0.65 | 0.69 | 0.44 | 0.55 | 0.58 | 0.67 | 0.74 | 0.70 |
| 교육훈련비 비율 | 0.01 | 0.00 | 0.00 | 0.09 | 0.00 | 0.02 | 0.04 | 0.00 | 0.01 | 0.02 | 0.01 | 0.02 |

교육훈련비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일자리 제공형의 경우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제공형의 경우, 목적 자체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기에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 수, 총수입, 영업활동 비율이나 주40시간 근로자 비율에서는 목적유형별 비교에서 하나의 일관된 경향을 발견하기 어렵다.

끝으로 사회적기업의 임금수준에서 나타나는 변화 양상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고 민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자. 임금수준이란 고용의 질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므로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일정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소기업을 비교대상으로 한 것은 분석대상 사회적기업의 고용규모가 300인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자리의 질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임금수준만이 아니라 근로시간, 고용안정성, 건강 및 안전 등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글의 분석 자료는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

앞서 <표 1>에서 설명한 임금수준의 변화는 표본 결측치 존재로 인해 연도별로 상이한 표본에서 계산된 것이어서 사회적기업의 연도별 임금수준 변화를 정확히 포착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적기업 중 인증연도별로 임금 변수가 계속 관찰되는 기업들만으로 표본을 구성한 다음, 임금수준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표본이 대표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¹⁾ 동일 기업만으로 구성되는 표본이므로 임금수준의 연도별 변화 양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3>에 따르면, 2007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2007, 2008, 2009년 임금수준은 각각 1,302천 원, 1,362천 원, 1,290천 원으로 명목임금 수준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으나, 실질임금 수준에서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2008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2008년의 임금수준은 1,219천 원이었으나 2009년에 와서 1,317천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실질임금 기준으로도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과 민간중소기업 간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자. 먼저 2007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2007년과 2008년의 임금수준은 각각 전체산업 중소기업의 56.9%, 56.7%에 불과하며, 2009년에는 더욱 격차가 벌어져 54.7% 수준으로 떨어진다. 2008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임금수준은 2008년 전체산업 중소기업의 50.7%에 불과하였고 2009년에는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55.8%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의 임금수준은 민간중소기업 임금의 60%에도 못 미치는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1) 2007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전체 표본은 52개소였으나 3년간(2007~09년) 임금이 계속 관찰되는 표본은 32개였으며, 2008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전체 166개소 가운데 2년간(2008~09년) 임금이 계속 관찰되는 표본은 88개로 나타났다.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실태조사(노동비용)를 이용하여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 간의 임금수준을 비교한 광선화(2010)의 분석결과와 상당히 비슷하다.

〈표 3〉 사회적기업과 민간중소기업 간 임금수준 비교

(단위: 천 원)

| | | 2007 | 2008 | 2009 |
|--------|------------|---------------|---------------|---------------|
| 사회적기업 | 2007년 인증기업 | 1,302 (1,302) | 1,362 (1,301) | 1,290 (1,199) |
| | 2008년 인증기업 | - | 1,219 (1,164) | 1,317 (1,224) |
| 민간중소기업 | 전체 산업 | 2,288 (2,288) | 2,404 (2,296) | 2,359 (2,192) |
| | 제조업 | 2,024 (2,024) | 2,095 (2,001) | 2,048 (1,903) |
| | 사회/개인서비스업 | 2,228 (2,228) | 2,360 (2,254) | 2,326 (2,162) |

주: 민간중소기업 임금은 월정액급여와 특별급여를 합한 것임. ()안은 실질임금(2007=100)임.
 자료: 민간중소기업은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보고서(노동부)에서 인용.

III. 사회적기업의 고용변동 결정요인 분석

1. 사회적기업의 고용변화 특성

〈표 4〉는 인증연도별로 사회적기업을 나누어 연도간 평균적 고용변화와 고용증감 기업의 비율을 제시하며, 이와 함께 비교집단 표본기업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비교집단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사회적기업들의 지역, 사업분야(업종), 사업체규모(300인 미만) 등을 고려하여 한국기업DB로부터 추출된 표본이다.

먼저 2007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고용증감을 보면, 2007~08년 동안 평균 7.9명이 증가하였으며 73%의 기업이 고용증가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2008~09년에는 2007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고용은 평균 5.3명이 줄었고 고용증가 기업의 비율도 43.6%에 불과하였다. 2007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인증 후 다음 연도에는 상당한 고용증가를 실현하였으나 이어지는 3년차에는 고용규모가 오히려 감소한다. 물론 시계열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고용규모 축소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 향후 보다 긴 시계열자료를 통해 중장기적인 고용증감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2008~09년 동안 평균 6명의 고용증가를 실현하였다.

한국기업DB로부터 추출된 비교집단의 고용증감을 보면, 2007~08년 동안 평균 2.7명이 증가하는 데 그쳐 2007년 인증 사회적기업(7.9명)에 비해 낮은 고용증가를 보여준다.

〈표 4〉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고용증감

(단위: 개, 명, %)

| | 기업수 | 평균고용 | | 고용증가 | | 고용증감기업 비율 | |
|----------------|------|-------|-------|-------|-------|-----------|-------|
| | | t기 | t+1기 | 평균 | 표준편차 | 고용증가 | 고용감소 |
| 2007년 인증 사회적기업 | | | | | | | |
| 2007~08 | 50 | 61.29 | 69.19 | 7.90 | 26.00 | 72.97 | 27.03 |
| 2008~09 | 50 | 69.19 | 63.86 | -5.33 | 28.89 | 43.59 | 56.41 |
| 2007~09 | 50 | 61.29 | 63.86 | 2.57 | 38.66 | 62.50 | 37.50 |
| 2008년 인증 사회적기업 | | | | | | | |
| 2008~09 | 156 | 30.15 | 36.16 | 6.01 | 17.06 | 75.64 | 24.36 |
| 비교집단 | | | | | | | |
| 2007~08 | 1858 | 33.32 | 36.06 | 2.74 | 16.64 | 63.22 | 36.78 |
| 2008~09 | 1858 | 36.06 | 38.64 | 1.58 | 17.50 | 68.50 | 31.50 |

2008~09년의 경우 비교집단의 고용증가는 1.58명으로 2007년과 2008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평균 고용증가(3.26명=5.33×50/206+6.01×156/206)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비교 결과는 최소한 평균 고용증감 기준에서는 인증 사회적기업의 고용성고가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고용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마찬가지로 인증 사회적기업의 고용성고가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여준다.

한편 사회적기업을 조직형태별로 나누어 평균 고용증감을 살펴보면(표 5), 상법상회사의 조직형태를 가지는 사회적기업이 다른 조직형태에 비해 고용규모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특히 2007년 인증기업의 2008~09년간 고용증감의 실적을 보면, 상법상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 즉 민법상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모두에서 상당 정도의 고용감소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표 5〉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고용증감

(단위: 개, 명, %)

| | 2007년 인증기업 | | | | | | | | | 2008년 인증기업 | | | | | | | | |
|------------|------------|---------|----------|---------|-----------|---------|---------|---------|----------|------------|-----------|---------|-----|---------|----------|---------|-----------|---------|
| | 2007~08 | | | | | | 2008~09 | | | 2008~09 | | | | | | | | |
| | 기업수 | 평균고용 t기 | 평균고용 t+1 | 고용증가 평균 | 고용증가 표준편차 | 증가기업 비율 | 기업수 | 평균고용 t기 | 평균고용 t+1 | 고용증가 평균 | 고용증가 표준편차 | 증가기업 비율 | 기업수 | 평균고용 t기 | 평균고용 t+1 | 고용증가 평균 | 고용증가 표준편차 | 증가기업 비율 |
| 1. 민법상법인 | 15 | 97.6 | 105.1 | 7.4 | 5.8 | 75.0 | 13 | 105.1 | 98.3 | -12.8 | 40.4 | 53.3 | 28 | 37.1 | 34.7 | -2.4 | 18.1 | 70 |
| 2. 상법상회사 | 18 | 25.6 | 37.1 | 11.5 | 13.2 | 85.7 | 17 | 37.1 | 43.6 | 9.7 | 20.3 | 68.4 | 58 | 18.9 | 30.4 | 11.5 | 11.9 | 82.3 |
| 3. 민법상조합 | 1 | 67 | 61 | -6 | | | 1 | 61 | 42 | -10 | | | 6 | 41.2 | 50.3 | 9.1 | 12.8 | 83.3 |
| 4. 비영리민간단체 | 8 | 76.2 | 80.7 | 4.5 | 55.3 | 57.1 | 8 | 80.7 | 54.7 | -15 | 29.9 | 14.3 | 29 | 33.8 | 36.5 | 2.7 | 23.7 | 65.5 |
| 5. 사회복지법인 | 4 | 54.2 | 59.5 | 5.2 | 6.6 | 75 | 5 | 59.5 | 51.7 | -5.4 | 15.8 | 50 | 22 | 44.5 | 55.9 | 11.4 | 17.4 | 73.9 |

〈표 6〉 목적유형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고용증감

(단위: 개, 명, %)

| | 2007년 인증기업 | | | | | | | | 2008년 인증기업 | | | | | | | | | |
|--------------|------------|------|------|----------|---------|------|------|----------|------------|-------|------|----------|----|------|------|-----|------|------|
| | 2007~08 | | | | 2008~09 | | | | 2008~09 | | | | | | | | | |
| | 기업 수 | 평균고용 | 고용증가 | 증가 기업 비율 | 기업 수 | 평균고용 | 고용증가 | 증가 기업 비율 | 기업 수 | 평균고용 | 고용증가 | 증가 기업 비율 | | | | | | |
| 1. 일자리 제공형 | 14 | 37.9 | 49.2 | 11.2 | 22.5 | 71.4 | 13 | 50.8 | 47.8 | -3.1 | 30.5 | 54.5 | 65 | 34.1 | 39.7 | 5.7 | 14.6 | 72.8 |
| 2. 사회서비스 제공형 | 5 | 47.7 | 54.7 | 6.8 | 15.7 | 50 | 3 | 54.7 | 48.4 | -6.3 | 17.9 | 33.3 | 20 | 32.8 | 41.9 | 9.1 | 12.8 | 85.0 |
| 3. 혼합형 | 17 | 81.4 | 89.9 | 8.5 | 16.1 | 77.8 | 21 | 89.7 | 77.0 | -11.6 | 32.2 | 38.1 | 44 | 27.6 | 31.9 | 4.3 | 22.7 | 71.4 |
| 4. 기타형 | 13 | 63.5 | 64.6 | 1.1 | 41.3 | 76.9 | 10 | 64.6 | 76.4 | 11.8 | 19.2 | 78.6 | 16 | 17.9 | 26.3 | 8.4 | 12.9 | 88.2 |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을 목적유형별로 나누어 고용증감 정도를 비교해보면(표 6), 목적별로 일관된 패턴을 발견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일자리 제공형의 고용증가 성과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2007년 인증기업의 경우를 보면 2007~08년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고용증가를 보이나 2008~09년에는 고용감소를 나타내며, 2008년 인증기업의 경우는 비교적 저조한 고용증가 성과를 보여준다.

2. 사회적기업의 고용변동 결정요인 분석

여기서는 2007년과 2008년에 인증된 사회적기업 표본만을 대상으로 고용변화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여기서 종속변수는 자연로그 형태로 표현된 총 근로자 수의 변화로 측정된다. 사회적기업의 고용을 결정하는 주요 설명변수로는 지역 더미(기준=비수도권), 조직형태 더미(기준=민법상 법인), 목적유형 더미(기준=일자리 제공형), 사업분야 더미(기준=교육), 취약계층 비율, 여성 비율, 30~55세 근로자 비율, 총수입 중 영업활동 비율, 총수입 중 민간시장 비율, 교육훈련비 비율, 로그 총수입 변화, 사회적기업 인증연도 더미(기준=2007년), 연도 더미(기준=2007년) 등을 포함한다.

<표 7>은 고용변동 방정식에 대한 OLS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총수입 변화 변수는 계수값이 0.227로 추정되고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총수입이 증가할수록 고용증가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여준다. 즉 총수입에 대한 고용탄력성이 0.227로 총수입이 10% 변화할 때, 고용은 2.27% 변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총수입(또는 매출액)이 고용수준 결정의 주된 요인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부합한다. 총수입 가운데 영업활동 비율 변수 또한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0.399)으로 추정되어 영업활동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2007년 인증기업보다 평균적으로 고용증가 정도가

0.416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기초통계에서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사회적기업 인증 초기인 2007년에는 고용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 출발한 기관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정부주도형이 인증 사회적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였고, 또한 자활공동체나 장애인표준사업장 등과 같이 대부분 정부의 인큐베이팅 역할이 필요한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인증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곽선화 외, 2010). 또한 2008년에는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특화된, 지역기반

〈표 7〉 회귀분석결과(OLS) : 사회적기업의 고용결정요인(2007~08년 인증기업 표본)

| 종속변수: 로그 고용변화 | | 계수값 | 표준오차 | t-값 | P> t |
|------------------------|----------------|--------|-------|-------|-------|
| 지역 더미(기준: 비수도권) | 수도권 | -0.017 | 0.080 | -0.21 | 0.832 |
| 조직형태 더미 (기준: 민법상법인) | 상법상회사 | 0.015 | 0.116 | 0.13 | 0.895 |
| | 민법상조합 | -0.094 | 0.220 | -0.43 | 0.669 |
| | 비영리단체 | -0.088 | 0.115 | -0.77 | 0.441 |
| 목적 더미 (기준: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0.005 | 0.134 | -0.04 | 0.972 |
| | 혼합형 | 0.361 | 0.153 | 2.36 | 0.019 |
| | 기타형 | 0.333 | 0.105 | 3.17 | 0.002 |
| 사업분야 더미 (기준: 교육) | 보건 | 0.246 | 0.139 | 1.77 | 0.079 |
| | 사회복지 | 0.392 | 0.414 | 0.95 | 0.345 |
| | 환경 | -0.186 | 0.203 | -0.92 | 0.361 |
| | 문화, 예술, 관광, 운동 | -0.056 | 0.203 | -0.27 | 0.784 |
| | 보육 | 0.117 | 0.268 | 0.44 | 0.662 |
| | 간병, 가사지원 | 0.213 | 0.249 | 0.85 | 0.394 |
| | 기타 | -0.243 | 0.204 | -1.19 | 0.235 |
| | | -0.030 | 0.191 | -0.16 | 0.877 |
| 취약계층 비율 | | 0.226 | 0.181 | 1.25 | 0.214 |
| 여성 비율 | | -0.267 | 0.169 | -1.58 | 0.117 |
| 30~55세 비율 | | -0.114 | 0.174 | -0.65 | 0.514 |
| 총수입 중 영업활동 비율 | | 0.399 | 0.192 | 2.08 | 0.039 |
| 민간시장 비율 | | 0.159 | 0.150 | 1.06 | 0.291 |
| 교육훈련비 비율 | | 1.062 | 1.114 | 0.95 | 0.342 |
| 인증연도 더미(기준: 2007년) | | 0.416 | 0.106 | 3.93 | 0.000 |
| 연도 더미(기준: 2007년) | | -0.266 | 0.140 | -1.9 | 0.059 |
| 총수입 변화 | | 0.227 | 0.058 | 3.88 | 0.000 |
| 상수항 | | -0.276 | 0.347 | -0.8 | 0.428 |
| N | | 212 | | | |
| adj-R ² | | 0.228 | | | |

을 가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한 사정이 작용한 데도 부분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연도 더미의 경우, 2008년은 2007년에 비해 고용증가 정도가 0.266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라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 목적 더미의 추정결과를 보면,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혼합형(일자리 제공형+사회서비스 제공형), 기타형, 일자리 제공형의 순으로 나타나 일자리 제공형의 고용증가 정도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여준다. 일자리 제공형이란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두는 유형으로 다른 목적 유형에 비해 일자리 증가 정도가 낮은 것은 취약계층 자체가 저숙련 노동력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저부가가치·저성장기업일 가능성도 높아 지속적 기업 성장 및 고용 확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을 입안할 때 정책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기업유형이 달라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정책 목표가 일자리 증가에 있다면,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우선적인 지원대상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사회적기업과 비교집단 기업의 고용효과 비교

앞서 설명하였듯이 본 연구는 한국기업DB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사업분야, 근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집단을 추출한 다음 사회적기업 DB와 결합하여 분석데이터를 창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비교집단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규모 분포를 고려하여 300인 미만으로 한정하고, 사회적기업의 사업분야에 대응하는 업종에 한해서 비교집단의 기업을 모두 추출하였다.²⁾

사회적기업 인증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책변수 더미를 설정하여 추정모형을 구성하였다. 사회적기업 DB와 한국기업DB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양 DB에 공통되는 변수가 많이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지역, 사업분야, 총수입, 교육훈련비, 사회적기업 인증 정책변수 더미, 연도 더미 등 제한적인 설명변수들을 포함하는 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8>은 사회적기업과 비교집단으로 구성되는 기업 표본에 대해 고용결정요인에 대

2) 회귀분석에 활용된 최종 자료는 2008년 기준으로 비교집단 기업 3,266개, 사회적기업 187개를 포함한다. 2008년 기준 평균 근로자 수는 비교집단이 30.8명으로 사회적기업(38.9명)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종별로 사회적기업과 비교집단의 평균 근로자 규모를 비교해보면, 편차가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업종별 사회적기업(비교집단)의 근로자 수를 보면, 교육 41.8명(61.1명), 보건 13.5명(46.9명), 사회복지 45.2명(56.0명), 환경 43.7명(24.2명), 문화·예술·관광·운동 25.0명(42.3명), 간병·가사지원 57.1명(29.5명), 기타 26.9명(33.8명)으로 나타난다.

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사회적기업 인증 더미의 경우 계수값은 0.119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다른 가능한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인증 사회적기업이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해 평균적으로 0.119만큼(로그 고용변화 기준) 우월한 고용성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적기업이 비슷한 비교집단 기업에 비해 고용성과가 우월하다는 결론으로 바로 연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사회적기업의 고용성과가 비교집단보다 우월하다는 분석결과는 사회적기업 인증 자체가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을 동반한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고용성과가 우월한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종료된 다음 사회적기업과 비교집단 사이의 고용성과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분석기간(2007~09년) 동안에는 표본에 포함된 사회적기업들이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정부 예산지원 종료 후의 분석기간까지를 포함하는 보다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수입 변화 변수의 계수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추정치를 보여준다. 이는 총수입 증가(감소)가 많을수록 고용증가(감소)가 커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고용 결정요인 방정식의 추정결과와 부합한다. 한편 교육훈련비 변화 변수의 계수는 그 크기가 작으나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훈련비 투자가 많을수록 고용증가에

〈표 8〉 회귀분석결과 : 사회적기업과 비교집단

| 종속변수 : 로그 고용변화 | 계수값 | 표준오차 | t-값 | P> t |
|--------------------|--------|-------|-------|-------|
| 지역 더미(기준 : 비수도권) | 0.007 | 0.013 | 0.52 | 0.601 |
| 보건 | -0.043 | 0.084 | -0.50 | 0.614 |
| 사회복지 | -0.201 | 0.103 | -1.95 | 0.051 |
| 환경 | 0.007 | 0.060 | 0.12 | 0.907 |
| 문화, 예술, 관광, 운동 | 0.062 | 0.077 | 0.81 | 0.420 |
| 보육 | -0.062 | 0.155 | -0.40 | 0.688 |
| 간병, 가사지원 | -0.031 | 0.087 | -0.35 | 0.725 |
| 기타 | 0.033 | 0.060 | 0.55 | 0.584 |
| 총수입 변화 | 0.135 | 0.012 | 11.08 | 0.000 |
| 교육훈련비 변화 | 0.005 | 0.002 | 2.08 | 0.037 |
| 연도 더미(기준 : 2007) | -0.031 | 0.012 | -2.53 | 0.011 |
| 사회적기업 인증 더미 | 0.119 | 0.045 | 2.65 | 0.008 |
| 상수항 | 0.038 | 0.061 | 0.63 | 0.530 |
| 관측치 | 4348 | | | |
| adj-R ² | 0.034 | | | |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교육훈련비의 증가가 근로자의 인적자본 및 숙련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성장, 이에 따른 고용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연도 더미의 경우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앞서 논의하였듯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이 글에서는 지난 3년(2007~09년) 동안의 기업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들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사회적기업의 고용성고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 비교집단에 비해 과연 사회적기업의 고용성고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석자료의 시계열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이 종료된 이후까지를 포함하지 않아서 예산지원 종료 후 사회적기업의 고용성고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 도출되는 분석결과는 그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보다 긴 시계열을 가지는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주요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8년 인증 사회적기업은 2007년 인증기업보다 고용증가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사회적기업 인증 초기인 2007년에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 출발한 기관들이 상당수 정부주도형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었고, 자활공동체와 같이 정부의 인큐베이팅 역할이 필요한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인증된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08년에는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특화된, 지역기반이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이 적극 추진된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추진에서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 육성이 고용성고를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둘째, 목적유형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경우 고용증가 정도가 가장 높은 반면,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두는 일자리 제공형은 가장 낮았다. 이는 일자리 제공형의 경우 고용되는 취약계층이 저숙련이고 또한 저부가가치·저성장분야일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 기업 성장 및 고용 확대가 어려운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일자리 제공형의 성과가 낮아서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단순한 결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주된 정책 목표가 일자리에 있다면 사회서비스 제공형이 우선적인 지원대상이겠지만, 정책 목표가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이라면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여전히 존재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을 입안할 때 정책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기업유형이 달라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기업과 비교집단으로 구성되는 기업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 사회적기업 인증 더미의 계수가 고용증가 정도에 매우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 자체는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다. 다만 분석자료의 시계열이 길지 않아 정부 지원 종료 이후의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기업 인증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이르기 때문에 향후 보다 긴 시계열을 가지는 자료를 분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기업과 비교집단으로 구성되는 표본에 대한 분석결과, 교육훈련비 변화 변수 계수는 크기가 작으나 유의하게 나타나 교육훈련비 투자가 많을수록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훈련비 증가가 인적자본 및 숙련 향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성장, 이에 따른 고용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입안할 때,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KLI**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07, 2008, 2009),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 보고서』.
 광선화·문홍석(2010), 『사회적기업 3주년 성과분석』, 고용노동부.
 이정봉(2010), 「사회적기업의 노동조건 현황과 과제」, 『노동사회』 3·4월호.